

追擊處와 邀擊處의 疆域史的 意義*

- 15~16世紀 北方 制勝方略과 고려 동북 9성을 中心으로 -

崔 昌 國**

1. 서 론
2. 북방 제승방략
3. 추격처와 요격처의 강역
4. 고려 동북 9성과 추격처 및 요격처와의 관계
5. 결 론

1. 서 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제승방략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무력함이 드러난 남부 지방의 제승방략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지방의 군사제도가 진관체제로 복귀하면서 제승방략은 진관체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종전의 제승방략 연구는 허선도를 중심으로 한 '남방 제승방략'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¹⁾ 근자에는 김세명의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육군대학 졸업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글임.

** 육군 소령(육군대학 학생장교)

『조선시대 전기진법과 제승방략』²⁾ 및 장학근의 『제승방략이 지닌 병력운용의 가치』³⁾라는 제하의 연구가 그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남방 제승방략' 위주의 것들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에서 시행된 '북방 제승방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행히 1999년에는 김구진과 이현숙의 선구자적인 연구결과,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국역 제승방략』⁴⁾을 출간함으로써 본격적인 '북방 제승방략'의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고,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15~16세기 함길도 지역 군사체제 제승방략 연구」⁵⁾를 통해 북방 제승방략 연구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이러한 북방 제승방략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추격처와 요격처이다. 추격처와 요격처는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적 수단으로 『제승방략』 권2의 열진방어(列陳防禦) 편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각 진보(鎭堡)는 각각의 추격처와 요격처를 운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원문 『제승방략』과 『국역 제승방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백지에 각 진보를 중심으로 언급된 추격처와 요격처의 거리와 방향을 표시하는 백지전술⁶⁾의 방법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결과 추격처와 요격처의 대부분이 두만강 이북의 만주지역이라는 잠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현존하는 각

- 1) 허선도, 「『제승방략』 연구(상·하)」, 『한국군사사논문선집4, 조선전기편』(국방군사연구소, 1999).
- 2) 김세명, 『조선시대 전기진법과 제승방략의 현대적 의미』(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2).
- 3) 장학근, 「제승방략이 지닌 병력운용의 가치」, 『군사』 제64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4) 김구진·이현숙, 「제승방략의 북방 방어 체제」, 『국역 제승방략』, 군사사고전국역, 제1권 제승방략(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5) 줄고, 「15~16세기 함길도 지역 군사체제 제승방략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7).
- 6) 육군본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2006), p. 256. 백지전술은 군에서 백지에 지형과 상황을 임의로 알맞게 부여하여 전술교리를 이해시키고 응용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제승방략』에서 언급된 추격처와 요격처의 위치를 주변 진(鎭)·보(堡)로부터의 이격거리와 방향을 기초로 역추적하여 도식한 결과 대부분이 두만강 이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 고지도와 고문헌은 필자가 도출한 결과를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방 제승방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만주지역 일대를 그 군사적 활동 범위로 삼았던 북방 제승방략의 추격치와 요격치의 강역사적 의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영토관이 한반도 고정적이 아닌 대륙 지향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북방 제승방략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승방략은 임진왜란 이전에 진관체제를 대신하여 남쪽 지방에서 시행되었던 지방군사제도이나, 평안도 및 함경도 일대의 북방 지역에서는 남방의 제승방략과는 그 특성과 운영체계가 다른 별도의 '북방 제승방략 체제'를 운용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 군사제도는 양계⁷⁾와 양계 이남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운용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⁸⁾과 같다.

<표 1> 지방 및 양계지역 군사제도의 변천

구 분	지방 군사제도	양계지역 군사제도
고려 초기	주현군(州縣軍)	주진군(州鎭軍)
여말선초	영진군(營鎭軍)	익군(翼軍) 혹은 군익도(軍翼道)
조선 전기(세조년간)	진관체제(鎭管體制)	독특한 진관체제: 제승방략(制勝方略)
임진왜란 이전	남방 제승방략	북방 제승방략

7) 고려는 군사적으로 중시되던 압록강의 평안도 일대를 북계(北界), 천리장성 동쪽 끝 정평 이북 지역을 동계(東界)라 하였으며, 조선은 고려의 지방제도에 따라 함경도를 동북면, 평안도를 서북면이라 하여 고려와 조선 모두 이 지역을 양계라고 일컫었다.

8) 참고, 앞의 논문, p. 26.

임진왜란 이전의 남방 제승방략 체제는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당시 제주목사 김수문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분군법(分軍法)을 이용하여 도내의 여러 고을 병력들을 순변사(巡邊使)·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防將) 등의 경장(京將)과 본도(本道)의 병사(兵使) 및 수사(水使)에게 분속시켜, 왜구를 효과적으로 무찌른 것이 계기가 되어 시행된 일시적인 지방 군사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승방략은 서울에서 내려온 경장(京將)이 지방의 병력을 지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유사시 지방의 병력들이 집결해 있더라도 서울의 경장(京將)이 지연도착하게 되어 적병이 먼저 쳐들어오면 지휘관이 없는 병력들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성룡은 제승방략을 폐지하고 진관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였으나,⁹⁾ 방군수포(防軍收布) 및 대역납포(代役納布) 등의 문제로 그 복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경상 감사 김수(金粹)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다.¹⁰⁾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제승방략 체제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자 1594년 3월, 유성룡의 재건의로 결국 제승방략은 폐지되고 지방군제는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복귀하게 되었다.¹¹⁾

남방의 제승방략이 위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북방의 제승방략은 북병사가 경성에 상주하면서 각 거진(巨鎭)¹²⁾의 진장(鎭長)들을 직접 통제했기 때문에 유사시 별도의 경장 파견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방의 제승방략은 서울에서부터 파견된 순변사·방어사·조방장 등의 경장이 아닌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각각의 지휘관들이 토병(土兵) 위주로 구성된 6진과 3읍의 상비군들을 지휘·통제했기 때문에 남방의 제승방략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병력 운용면에 있어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

9)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10월 1일 기사조.

10) 허선도, 『『제승방략』연구(하)』, 『한국군사사논문선집4, 조선전기편』(국방군사연구소, 1999), p. 523.

11) 『선조수정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9일 정미조. 참고, 위의 논문, p. 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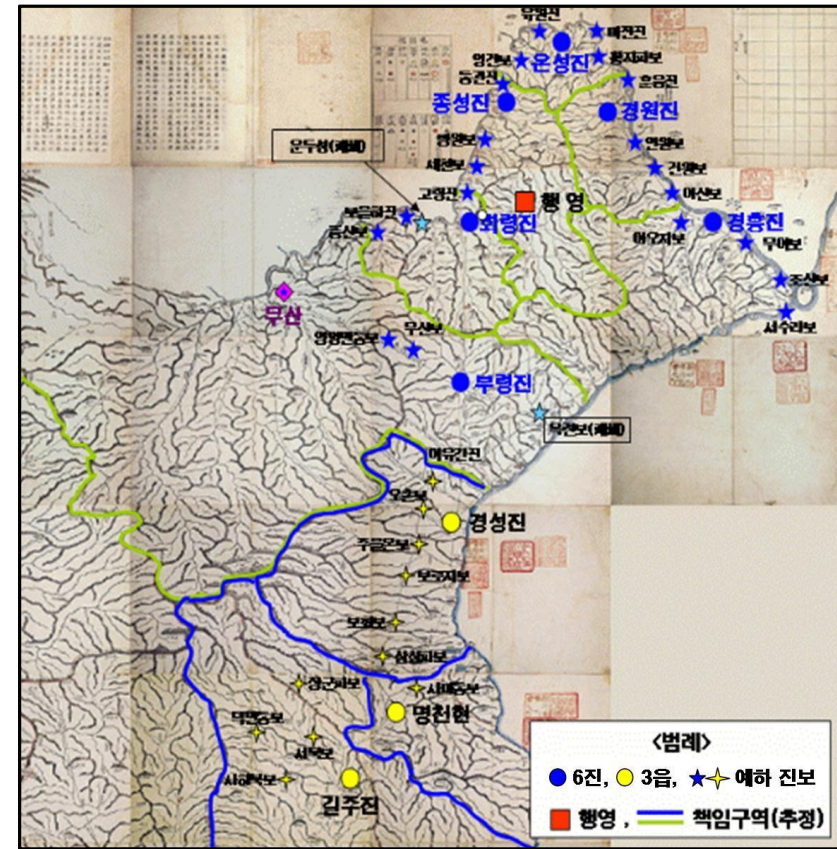
12) 함경북도 지역 6진의 본부격인 경흥진, 경원진, 온성진, 종성진, 회령진, 부령진과 3읍의 본부라 할 수 있는 경성진, 명천현, 길주진을 의미한다.

었다. 북병사가 경성에 상주한 것은 함길도¹³⁾ 지역의 험난한 지형과 6진 지역의 국방상 긴요성 때문이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회령진과 경흥진의 중간지역인 행영(行營)으로 거처를 옮겨 두만강의 결빙을 이용한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북방 제승방략에 있어 주요 거점이 6진과 3읍이었는데 이들의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1]¹⁴⁾은 6진과 3읍의 분포현황이다. 태조 7년(1398) 북병영인 경성(鏡城)에 만호진을 설치하였고, 두만강 하구에는 경원부(慶源府)를 두어 군사행동의 거점을 마련하였다(이 경원부는 이후 경흥부(慶興府)의 위치가 되었다). 태종대에는 여진의 공격을 받아 경원부(慶源府, 현 경흥)를 경성(鏡城)으로 일시 후퇴시켰으나, 세종 10년(1428)에 이르러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경원부를 다시 회복하였다. 세종 15년에는 회령(會寧)을 세우고, 16년에는 경원과 회령을 연결하기 위하여 현 행영(行營)지역에 종성진(鐘城鎭)을 설치하였다. 이어 경원을 북쪽으로 옮겨 두만강 중류의 현 거점으로 삼았고, 구(舊) 경원진 터에는 경흥을 세웠다. 강변의 중요 거점을 확보한 세종은 1440년(세종 22) 최북단 지역에 온성(穩城)을 설치하고, 현 행영(行營)의 위치에 있는 종성을 강변으로 옮겨 경원과 회령 사이의 간격을 메웠다.

그리고 '토목의 변'이 발생했던 세종 31년(1449)에는 무산령 남쪽의 부령(富寧)을 도호부로 승격시켜 두만강변 5진과 내륙 1진의 6진 체제를 완성하였다¹⁵⁾(이후 언급하는 제승방략은 모두 '북방 제승방략'¹⁶⁾에 해당함을

[그림 1] 6진 3읍의 분포현황



밝혀둔다). 당시 6진은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조선으로 귀화한 여진족들의 번호부락을 포함하여 사민정책으로 이주한 조선의 백성들이 운집하여 살고 있었으며, 6진을 거점으로 한 주민밀집 주거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¹⁷⁾

13)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9월 9일 정유조. 동북면은 1402년 조사의 반란 이후 동북면의 민심이 이반(離反)하자, 1413년 10월에 영길도(泳吉道)로 개칭되었다가, 1416년 9월에 함주와 길주의 첫 자를 따서 함길도로 변경되어 1470년 이전까지 사용된 명칭이다.

14) 줄고, 앞의 논문, p. 35.

15)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제36집(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pp. 299-300.

16) 이후 언급하는 '제승방략'은 고유명사로서 군사체제를 의미하며, 『제승방략』 혹은 『국역 제승방략』은 서적을 의미함.

17) 줄고, 『압록수 이천리, 천리 두만강』, 『군사논단』 통권 제52호(2007년 겨울), pp. 205-206.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두만강변의 6진이 완성되었고, 6진을 중심으로 한 『제승방략』의 「열진방어」가 구축되었으며, 『제승방략』은 다시 김종서(金宗瑞)-이일(李鎰)-이선(李選)으로 이어지면서 증보 편찬되고 복간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제승방략』은 크게 제1권과 제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부터 제2권의 중간부분까지는 「열진방어」편으로 두만강변 중심의 전방 6진과 후방 3읍의 방어설비·보유장비·토착군 및 부방군의 현황과 운용, 적정 탐색 방법, 봉수 등 방어전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은 군기확립에 관한 내용으로 부대원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규율에 대한 군무(軍務) 29조(條) 및 금령(禁令) 27조가 기술되어 있다.

제2권의 거의 끝부분에는 「6진 대분군」편과 「3읍 소분군」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오랑캐를 큰 진형과 작은 진형으로 나누어 공격하는 공격전략 내용이다.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은 북병사(북도 병마 절도사) 이일(李鎰)이 『제승방략』의 정비를 마치고 시행하기를 왕에게 요청하는 장계(청행제승방략장(請行制勝防略狀)), 비변사에서 이일의 장계에 회답하는 관문(關文)[비국회관(備局回關)], 비변사 회답 내용을 토대로 함길도 남도의 순영(巡營, 감영)에 보고하는 내용(보순영(報巡營)), 그리고 병사 1인부터 1만 명까지 군량미를 지급하는 기준(방량식(放糧式))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제승방략』은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동원 등 전쟁 수행의 제요소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핵심은 『제승방략』의 추격처와 요격처가 갖는 강역사적 의의이므로 『제승방략』의 수비 및 공격형태의 세부적인 내용은 줄고 15~16세기 함길도 지역 군사체제 제승방략 연구와 김구진·이현숙의 「제승방략의 북방방어 체제」를 참조해 주기 바라며, 다음은 수비형태 중에서도 공세적 행동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추격처와 요격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추격처와 요격처의 강역

제승방략의 수비형태 중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운용한 추격처와 요격처가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고 본다. 먼저 그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추격처는 내침한 여진족이 퇴각할 때 이를 추격하는 한계 지점이고, 요격처는 침입하는 여진족을 맞아서 요격하는 지점이다. 이를 설정한 목적은 물론 여진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두만강 유역의 강물과 개마고원의 험준한 산악 등 지형의 이점을 절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적을 추격하는 노정의 멀고 가까움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적은 수의 군사로 적을 추격하다가 적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 패배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세운 것이다.¹⁸⁾ 이 중 강변 5진의 추격처와 요격처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경흥진 권역은 포항·후라도 등을 포함하여 28개소, 경원진 권역은 소하전동·설가산 등을 포함하여 26개소, 온성진 권역은 차유령·임자고개를 포함하여 20개소, 종성진 권역은 차일수동 옥동이를 포함하여 14개소, 그리고 회령진 권역은 대사이오동·문암 아리상 부락을 포함하여 총 18개소의 요격처 및 추격처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원문에서는 각 진보의 추격처와 요격처를 개략적으로 다시 구분하였으나, 본고는 추격처와 요격처의 구분보다는 추격처와 요격처에 해당하는 지역의 위치가 논지의 핵심이므로 해당 진보의 추격처와 요격처를 통합하여 재정리하였다.

특이하게도 위의 추격처와 요격처의 위치를 나타내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명칭과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는 여진족들의 부락 명칭들이 음차(音借)된 글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추격처와 요격처 대부분의 위치가 여진족들이 거주하던 번호부락²⁰⁾이나 그 이북, 혹은

18) 『국역 제승방략』 제2권, 「군무(軍務) 29조」 7조, p. 144.

19) 위의 책, 제1권, pp. 7-100.

20) 위의 책, p. 11. 회령, 종성, 온성 등 북도 국경 지대의 여진 부락으로 강 건너 변보(邊

주변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추격처와 요격처의 위치 대부분이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 일대라는 것이다. 인지하다시피 간도는 백두산의 동북방,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와 백두산의 서남방,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로 이루어져 있다.²¹⁾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인(韓人) 사회가 형성된 북간도는 오늘날 연변 조선족자치주라 하는 연길(延吉)·화룡(和龍)·용정(龍井)·토문(圖門)·훈춘(琿春)·돈화(敦化)의 6개시와 안도(安圖)·왕청(汪淸)의 2개현이다. 본고에서는 북방 제승방략 체제가 운용된 함길도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간도지역은 자연스럽게 북간도지역이 된다.

추격처와 요격처 위치의 대부분이 두만강 이북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승방략』 「열진방어」편에 기록된 추격처와 요격처 현황을 <표 2>~<표 6>으로 정리하였다.²²⁾ <표 2>에서 보면 경흥진 예하 아오지보에서 운용한 추격처와 요격처 중 저령(猪嶺)은 아오지보에서 북쪽으로 5식(息) 5리(里) 거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세종 당시의 주척(周尺)²³⁾으로 환산하면 약 70km 거리이다. 현재도 아오지에서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10km 안팎이기 때문에 저령의 위치는 못해도 두만강 이북 50~60km 지점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경원진 권역의 경우 각 진보를 기준으로 대부분 동쪽으로 추격처와 요격처를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동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방향이 동쪽 혹은 동남쪽인 경우 이들 모두를 동쪽으로 인식했던 당시 조선인들의 방향인식 경향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북쪽 방향과 원거리 동쪽 방향의 추격처·요격처는 두만강 이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2> 경흥진 권역 추격처·요격처 현황

(* 1息 : 30里(13.5km), 10里 : 4.5km 기준)

구분	소속 성보	방향	지 명	거 리
경 흥 진 (28)	서수라보 (4)	동	주을온천변 포항	46km (3식 10여 리)
		동	후라도	28km (2식여 리)
		동	아사랑도	13.5km (1식)
		동	난도	13.5km (수로 1식)
	조산보 (5)	동	주을온천변	32km (2식 10여 리)
		북	이암 하대산	27km (2식)
		동	후라도	13.5km (수로 1식) / 27km (육로 2식)
		북	아질다라이	16km (35리)
	경흥진 (7)	남	우암연대	7km (15리)
		동	이암	11.3km (25리)
		북	아질다라이	27km (2식)
		북	국사당	13.5km (1식)
		동	주을온천변	27km (2식)
		동	보도손	40.5km (3식)
		동	야춘	54km (4식)
	무이보 (10)	동	저령	67.5km (5식)
		서	여오리산 동천	7km (15리)
		북	시전	7km (15리)
		동	회춘은	2.3km (5리)
		동	야춘	45km (3식 10리)
		북	노전향동	7km (15리)
		동	김장 다루가치 옛터	1.5km (10리)
		동	주을온천변 포항	18km (1식 10리)
		동	보도손	31.5km (2식 10리)
		동	야춘천변	45km (3식 10리)
	아오지보 (2)	동	저령	58.5km (4식 10리)
		북	야춘천변	20.1km (45리)
			북	저령

(堡) 가까이 살며 무역을 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을 일컬음.

21) 윤병성, 『간도역사의 연구』(국학자료원, 2003), p. 9.

22) 『국역 제승방략』 제1권, pp. 7-100.

23) <http://katnani.egloos.com/49037>. <http://www.koreandb.net/dictionaries/세종> 때의 주척(周尺)은 현재의 20.795cm로, 환산하면 1보=6척=124.77cm, 1리 449m, 10리 4492m이다. 오늘날 한국은 10리를 4km로, 중국은 과거 10리를 5km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 거리인 4.5km의 세종 주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표 3> 경원진 권역 추격처·요격처 현황

구분	소속 성보	방향	지 명	거 리
경 원 진 (26)	아산보 (8)	동	소하잔동 어귀	3.6km (8리)
		동	대하전동	9km (20리)
		동	설가산 하단/노전동	8.1km (18리) / 6.3km (14리)
		동	주을온천변	36km (2식 20리)
		동	황고라이 / 저령	41km (3식여 리) / 77km (5식 20여 리)
		동	소야지 고개	41km (3식여 리)
	건원보 (5)	동	주을온천변	10km (20여 리)
		동	차산 / 황고라이	19km (40여 리) / 10km (20여 리)
		동	장고개	76.5km (5식 20리)
		동	소야지 고개	41km (3식여 리)
	안원보 (4)	동	황고라이	41km (3식여 리)
		동	차산, 저령	28km (2식여 리) / 55km (4식여 리)
		북	소야지 고개	28km (2식여 리)
	경원진 (6)	동	보도손	54km (4식)
		북	소야지 고개	34km (2식 15리)
		동	국사당	35km (2식 18리)
		북	훈융진 지경 국사당의 소야지 고개령	20.1km (1식 15리)
		북	가막동 / 주을온천변	18km (1식 10리) / 41km (3식여 리)
		북	가막동-소야지 고개	17km (37리)
	훈융진 (3)	북	가막동-소야지 고개	17km (37리)
		동	저령 / 황고라이	81km (5식 30여 리) / 41km (3식여 리)

온성진 권역의 추격처·요격처에서 주의깊게 볼 지역은 미전진에서 운용한 국사당과 온성진의 쇠한고개이다. 국사당은 미전진에서 서쪽으로 약 41km 지점이고, 쇠한고개는 온성진에서 북쪽으로 약 41km 지점으로 모두가 두만강 이북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영건보에서 서쪽으로 약 50km(3식 20리) 지점에 운용한 이라천변은 가깝게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토문시, 멀게는 연길시 지역까지 해당되는 거리이다.

<표 4> 온성진 권역 추격처·요격처 현황

구분	소속 성보	방향	지 명	거 리
온 성 진 (20)	황자파보 (1)	동	차유령	34km (2식 15리)
	미전진 (7)	서북	하전동 어귀-임자고개 입구	10km (20여 리)
		북	나단동-임자고개 입구	9km (20리)
		동북	오유동-임자고개 입구	11.3km (25리)
		서북	대하전동	13.5km (1식)
		동	소초동	9km (20리)
		동	소야지 고개	18km (40리)
		서	국사당	40.5km (3식)
	온성진 (4)	북	쇠한고개	40.5km (3식)
		동	소야지 고개	40.5km (3식)
		서	용계아	40.5km (3식)
		북	하전동-임자고개 입구	31.5km (2식 10리)
	유원진 (4)	서	아사고개	40.5km (3식)
		동	임자고개	40.5km (3식)
		서	미전동 소야지 고개	31.5km (2식 10리)
		북	상수련	40.5km (3식)
	영건보 (4)	북	온성진의 국사당	54km (4식)
		동	임자고개	58.5km (4식 10리)
		동	미전진 지경 소야지 고개	49.5km (3식 20리)
		서	이라천변	49.5km (3식 20리)

<표 5> 종성진 권역 추격처·요격처 현황

구분	소속 성보	방향	지 명	거 리
종 성 진 (14)	동관진 (1)	서	차일수동(혹은 옥동이)	16km (1식 5리)
	종성진 (5)	서	차일수동 아당개 부락	18km (1식 10리)
		서	차일수동 옥동이 부락	19km (1식 10여 리)
		서	별질순 호리부락	18km (1식 10리)
		서	죽기동 국사당-차일수동	14km (1식여 리)
		남	고라이상단 장항	22.5km (1식 20리)
	방원보 (4)	서	문암동 구(口)	13.5km (1식)
		북	옥동이	27km (2식)
		남	별질순	20.1km (1식 15리)
		남	고라이	23km (1식 20여 리)
	세천보 (4)	남	고라이	32km (2식 10여 리)
		서	고라이동-문암 입구	25km (55리)
		북	문암동 구(口)	22.5km (1식 20리)
		남	별질순	30km (2식 5리)

종성진 권역에서는 종성진과 세천보에서 모두 서쪽 방향으로 운용한 차일수동 옥동이 부락과 고라이동을 거쳐 문암 입구로 이어지는 지역을 눈여겨 볼만하다. 해당 진보에서 각각 약 20km, 25km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 용정시 해란강 일대이다. 추격처·요격처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회령진이 운용한 추격처·요격처 중 특이할 만한 것은 보을하진과 풍산보에서 남쪽 방향으로 운용한 허수라동과 정승 파오달이다. 보을하진과 풍산보 남쪽은 부령진의 책임구역으로 내륙에 속하는데, 이는 무산 지역의 여진족들이 내륙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보을하진과 풍산보에서 남쪽으로 추격처와 요격처를 운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진에서 서북쪽에

<표 6> 회령진 권역 추격처·요격처 현황

구분	소속 성보	방향	지 명	거 리		
회 령 진 (18)	고령진 (2)	서북	대사오이동의 방원	14km (1식여 리)		
		서북	문암 아리상 부락	28km (2식여 리)		
	회령진 (8)	미 언 급		고라이동-자비동-대사오이동	18km (1식 10리)	
				사오이동-방원령-문암	40.5km (3식)	
				금보동	13.5km (30리)	
				운두성 성상·보을하진·동량동	27km (60리)	
				고라이동-종성진-차일천	72km (1백 60리)	
				풍산 기우동-정승 파오달	41km (90여 리)	
				노전항	27km (2식)	
				상보을하	40.5km (3식)	
			보을하진 (6)	서	남라난덕-무을계사	14km (1식여 리)
				북	화상가계	14km (1식여 리)
	북	사오이동-방장령		28km (2식여 리)		
	북	사오이동-문암		41km (3식여 리)		
	남	정승파오달		55km (4식여 리)		
	남	허수라동 등지		55km (4식여 리)		
	풍산보 (2)	남	허수라동	40.5km (3식)		
		남	정승 파오달	28km (2식여 리)		

운용한 문암 아리상 부락은 연변의 용정시 지역, 보을하진에서 북쪽에 운용한 사오이동-문암은 용정 혹은 화룡시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6진 중 강변 5진에서 운용한 추격처와 요격처의 위치가 두만강 이북의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과 많이 중첩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추격처·요격처 지역은 두만강 일대에 모여 살던 변호부락의 위치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성진의 차일수동(육동이)은 중성진의 번호부락이며, 문암과 사오이동은 회령진에 예속된 번호부락이었다. 이는 조선에 귀화하여 살던 오도리족 번호들 일부가 조선에 상당 부분 협조했다는 것이며, 그 대가로 조선은 해당 여진부락에 대한 특별 혜택을 부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격처와 요격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던 일부 여진부락에는 조선에서 구축한 별도의 군사시설물이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사민정책과 여진족과의 통혼을 통해 조선이 실시한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6세기 후반에 편찬된 『국조정토록(國朝征討錄)』²⁴ 하권, ‘정니마거(征尼麻車) 조’에는 ‘온성에서 야삼경에 강을 넘어 국사당(國祀堂)으로 가니 이 미 날이 저물어 서늘해졌다. 부하들이 말에게 꼴을 먹이고 가통(加通)과 남라(南羅) 두 고개를 넘어가니 하순평(河順坪)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의 바로 다음에는 ‘국사당, 가통·남라고개, 그리고 하순평이 모두 노지(虜地)에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²⁵ 노지는 곧 여진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두만강 이북을 나타낸다. 즉 국사당이 두만강 이북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몇몇의 고지도에서도 추격처와 요격처에 해당되는 지역이 두만강 이북으로 표시되어 있어 필자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림 2]~[그림 4]의 지도²⁶는 정상기(1678~1752)의 팔도지도 중 함경도 부분에 해당하는 지도이다. 비록 조선 후기의 지도이나 조선 전기 기록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경흥진 권역의 저령(猪嶺)과 야춘산(野春山)이 명확히 두만강의 훨씬 이북으로

24) 조선시대 전기에 실시한 7차례의 대외 정벌사를 기록한 책으로 16세기 후반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목판본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국조정토록(國朝征討錄)』에 대해서는 노영구, 『『國朝征討錄』 편찬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장서각 18호, 2007 참조.
 25) 『국조정토록(國朝征討錄)』 卷 下, 9-10面: 穩城夜三更渡江行至國祀堂時已味爽臣等秣馬踰加通南羅兩峴有河順坪. 國祀堂 加通南羅峴 河順坪皆在虜地.
 26) <http://e-kyujanggak.snu.ac.kr>/고지도(검색일: 2007. 11. 22).

[그림 2]



[그림 3]



표시되어 있다. [그림 3]에서는 미전진에서 운용한 대하전동(大下田洞)·하전동(下田洞)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사당(國祀堂)은 대하전동 북쪽에 위치한 국사령(國祀嶺) 중턱이나 입구 부근에 해당된다.

[그림 4]



[그림 4]는 방원보에서 운용한 문암동(門巖洞)과 고라이동(古羅耳洞)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라이동 남쪽의 금부동(金夫洞)은 아마도 회령진에서 운용한 금보동(金甫洞)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지도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수의 추격처·요격처 위치가 두만강 대안(對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도지도에 표기된 두

만강 대안의 추격처·요격처 위치는 해당 지역들의 정확한 당시 위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각각의 지역들이 두만강 이북 혹은 대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4]처럼 지도에 표기된 두만강 대안의 지역명이 일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 진보에 적변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진보는 성을 지킬 군사를 계산해 남겨두고 정예 군사를 거느려 즉시 달려가 구원하였는데, 이때는 추격처와 요격처에서 언급된 일부 지역을 통과하여 이동한 사실이 『세종방략』 「열진방어」편의 각 진보 기록에 모두 남아있다.

추격처와 요격처의 적지 않은 지역들이 두만강 이북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영토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 태종 5년(1405), 조선과 명이 국경을 획정할 때 조선은 공협진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협진(公嶮鎭) 이북은 요동으로 환속시키고, 공협진 이남에서 철령(鐵嶺)까지는 그대로 조선이 관할한다는 내용이었다.²⁷⁾ 계품사 김침(金瞻)이 이 같은 요지의 주본(奏本)과 지도를 가지고 명으로 떠났을 때, 주본에는 ‘공협진으로부터 공주(孔州)·길주(吉州)·단주(端州)·영주(英州)·웅주(雄州)·함주(咸州) 등의 고을이 모두 조선 땅에 소속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공주는 구(舊) 경원으로 세종 16년(1434) 이후에는 경흥으로 바뀐 지역이다. 경흥은 6진 중 두만강의 가장 하구에 위치한 주진(主鎭)이고, 조선의 사관(史官)들이 순서에 의해 실록을 기록했다는 사실²⁹⁾을 감안하면 공주보다 먼저 언급된 공협진은 두만강 이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7)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5월 16일 경술조.
28) 위의 책, 권7, 4년 5월 19일 기미조.
29) 줄고, 앞의 석사학위논문, p. 17.

4. 고려 동북 9성과 추격처 및 요격처와의 관계

공협진성은 고려 예종 3년(1108) 2월에 윤관이 동북 지역의 여진족에 대한 제2차 정벌 후에 축성한 9성(城)³⁰⁾ 중 하나로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관은 9성 축조 후 선춘령(先春嶺)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고 새긴 비를 세워³¹⁾ 9성의 영역을 명확히 하였지만, 오늘날 9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다. 조선 후기 정약용·한백겸 등은 길주 이남설을, 일제시대 池內宏·津田左右吉 등은 함흥평야설을 주장하였고,³²⁾ 현대에 와서는 김구진이 수분하(綏芬河) 남쪽 일대설³³⁾과 안주섭·이부오·이영화가 수분하 상류 노송령(老松嶺) 일대설³⁴⁾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규성은 연길설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³⁵⁾

30)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2월조.
31) 『북관유적도첩』 「척경입도비」, 『고려시대 군사전략』(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188에서 재인용.
32) 『중국정사조선전, 역주3』(국사편찬위원회, 2004), pp. 315-316. 첫째, 『고려사』 「지리지」 및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9성의 범위를 두만강 북쪽 7백리까지 잡았는데, 세종 때 김종서를 시켜 6진을 개척할 때 그 개척의 목표가 사실은 이 지역까지이다. 둘째, 조선 후기 정약용·한백겸·신경준·안정복 등의 실학자들은 대개 길주 이남으로 보았다. 이것은 당시 여진의 세력과 고려의 천리장성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 이것은 당시의 재야학자(在野學者)들이 『고려실록』·『조선실록』을 볼 수 없었던 제한성이 있었던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제시대 池內宏·津田左右吉·稻葉巖吉 등의 일인학자들은 윤관의 9성을 함흥평야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식민지사관에서 비롯된 견해로 만주 위주로 조선사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당시 여진족의 세력에 대하여 이미 국가조직을 갖춘 단계로 본 결과, 고려의 힘은 천리장성에서 한 발자국도 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즉 당시 고려의 국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일본의 강한 식민지사관의 반영이다.
33) 김구진, 「공협진과 선춘령비」, 『백산학보』 제21집(백산학회, 1976), pp. 73-87.
34) 안주섭·이부오·이영화, 『영토한국사』(소나무, 2006), pp. 110-114.
35) 최규성, 「선춘령과 공협진비에 대한 신고찰」, 『한국사론 34: 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국사편찬위원회, 2002), pp. 146-156.

[그림 5] 해동지도집, 서북피아양계지도(1750년대 초)



그러나 현존하는 고지도 중 윤두서의 『동국여지지도(1710년)』나 1720~173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집』에 실려 있는 「서북피아양계지도」와 조선여진분계도, 1750년대 말의 『여지도집』에 있는 조선여진양국경계도, 그리고 1820년대 제작된 『광여도집』의 조선여진양국경계도에서는 선춘령비의 위치를 모두 두만강의 훨씬 이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공협진과 선춘령[선춘현(先春峴)]³⁶⁾비의 위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아래는 선춘령비의 위치에 관한 기록이다.

동림성(東林城)에서 북쪽으로 5리쯤 가면 소다로(所多老)의 영기(營基)가 있고, 그 북쪽으로 30리에 회질가탄(會叱家灘)이 있으니, 바로 두만강의

36) 선춘현과 선춘령은 같은 의미이다.

하류이다. 강을 건너 10리 되는 넓은 들 가운데에 큰 성이 있으니, 곧 현성(縣城)이다. (중략) 그 북쪽으로 90리 되는 곳의 산상(山上)에 옛 석성(石城)이 있으니, 이름이 어라손참(於羅孫站)이다. 그 북쪽으로 30리에 허을손참(虛乙孫站)이 있고, 그 북쪽으로 60리에 유선참(留善站)이 있으며, 그 동북쪽으로 70리에 토성기(土城基)가 있으니, 곧 거양성(巨陽城)이다. (중략) 그 성은 본래 고려 대장(大將) 윤관이 쌓은 것이다. 거양에서 서쪽으로 60리를 가면 선춘현이니, 곧 윤관이 비(碑)를 세운 곳이다. 그 비의 4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으나, 호인(胡人)이 그 글자를 깎아 버렸는데, 뒤에 사람들이 그 밑을 뚫더니,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4자가 있었다. 선춘현(先春峴)에서 수빈강을 건너면 옛 성터가 있다.³⁷⁾

다음은 공협진 위치에 관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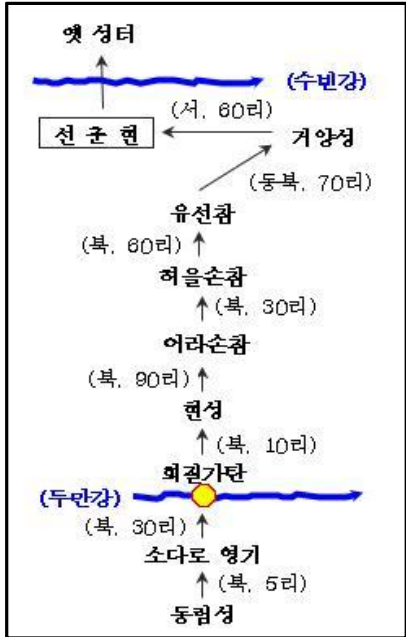
소다로(所多老)에서 북쪽으로 30리를 가면 어두하현(於豆下峴)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60리에 동건리(童巾里)가 있고, 그 북쪽으로 3리쯤의 두만강탄(豆滿江灘)을 건너서 북쪽으로 90리를 가면 오동사오리참(吾童沙吾里站)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60리에 하이두은(河伊豆隱)이 있고, 그 북쪽으로 1백 리에 영가사오리참(英哥沙吾里站)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소하강(蘇下江)가에 공협진이 있으니, 곧 윤관이 설치한 진(鎭)이다.³⁸⁾

위의 기록 중 공통적인 것은 선춘령과 공협진의 위치가 모두 두만강을 건너 그 북쪽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협진과 선춘령의 위치가 모두 북간도 지역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리지」의 내용을 역시 백지전술의 방법으로 도식하면 선춘령과 공협진의 위치는 각각 [그림 6]과 [그림 7]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37)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경원도호부.

38) 위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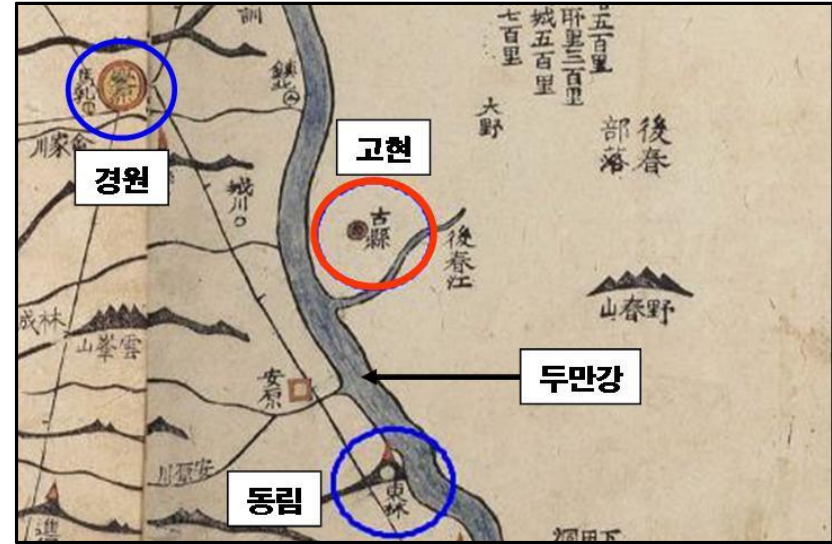
[그림 6] 선춘령 요도



[그림 7] 공험진 요도



[그림 8] 대동여지도, 동림성(東林城)과 고현(古縣)



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 『지리지』에서는 선춘령과 공험진 위치의 기준을 소다로와 동립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립성에서 북쪽 5리쯤 거리에 있는 곳이 소다로의 영기(營基)'라고 했는데 영기는 바로 군대의 병영(兵營) 터(基)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8]은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동립성의 위치이다. 동립성에서 북쪽으로 약 10리 거리에서 안원(安原)을 볼 수 있다. 안원은 '북방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하에 있던 6진(鎭) 중 경원진(鏡源鎭)에 속해 있던 보(堡)로 두만강변에 설치된 성(城)이다.³⁹⁾ 비록 기록에는 5리쯤의 거리라고 했지만 지도를 통해 그곳의 위치가 안원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소다로의 영기는 경원진 예하의 안원보를 의미한다.

또한 '소다로의 영기에서 북으로 30리를 가면 회질가탄이 있고, 두만강을 넘어 10리쯤 되는 곳에 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 8]에서도 고현(古縣)이 두만강 너머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현이 현성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반면 [그림 9]의 연변 조선족자치주 행정구획도⁴⁰⁾에서는 현성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성(古城)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어, 결국 대동여지도의 고현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현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대동여지도를 통해 밝혀낸 소다로와 동립성의 위치가 『지리지』의 기록에서와 같이 두만강 이남이라는 방증이며, 결국 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가 분명히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39) 『국역 제승방략』 제1권, pp. 31-32.

40) 『延邊朝鮮族自治州 行政區劃圖(1)』(山東省地圖出版社, 2002).

[그림 9] 연변 조선족자치주 행정구획도



필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현존하는 각종 고지도들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행정구획도 및 1950년 미 육군에서 발간한 1:250,000 축척의 만주지도(41)를 따라 공험진과 선춘령의 위치를 답사하였으며, 그 결과 두 곳 모두 두만강 이북의 연변 조선족자치주인 왕청현 일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선춘현(先春峴)과 공험진(公險鎭)42)」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여기서는 약(略)하고자 한다.

41) <http://www.lib.utexas.edu/maps/ams/manchuria/> 『Manchuria(1:250,000)』,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U. S. Army, 1950.

42) 줄고, 「선춘현(先春峴)과 공험진(公險鎭)」, 『안보문화와 미래』 창간호(한국미래문제연구

이상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제2차 여진정벌 이후 축성했던 동북 9성의 위치와 조선 전기 북방 계승방략 체제하에서 운용했던 추격처와 요격처의 위치가 모두 두만강 이북의 북간도 지역 일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고려시대 9성 축성 이후 사민(徙民) 규모가 75,000여 호인 것에 비해 세종 때에는 4차에 걸친 함길도 지역 사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고작 3,200여 호로 고려에 비해 24: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43) 이를 보더라도 고려시대 윤관의 동북 9성 영역은 조선의 6진에서 운용한 추격처·요격처의 범위를 포함한 매우 넓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김종서를 통해 6진을 개척할 당시, 공험진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보고하게 한 것44)은 두만강변의 여진정벌이 일시적인 '정복사업'이 아니라, 보다 원대한 조선의 '국토 개척 사업'의 일환이었음을 의미한다.45) 물론 고려의 동북 9성은 1108년 축성46) 이후, 겨우 1년여 만인 1109년 7월에 다시 여진에 환부47)하게 되지만 공험진과 선춘령비의 영역, 즉 동북 9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계승방략』의 추격처와 요격처 위치는 조선의 영토

원, 2007), pp. 167-203. 필자는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경원도호부조의 기사 및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 행정지도를 토대로 2007년 12월, 윤관이 설치한 9성의 공험진과 선춘령 위치 비정을 위해 중국 길림성 왕청현(汪淸縣) 일대를 직접 답사하였다. 답사 시기인 12월은 윤관 장군이 여진정벌을 시작하여 공험진성을 쌓은 시기(1107년 윤 10월 20일~1108년 2월)와 유사했으며, 연변의 행정지도에 나타난 도로는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들로 과거의 조도(鳥道) 그대로였기에 답사는 900년 전 윤관 여진정벌 당시의 기상 및 지형상태와 거의 비슷한 조건하의 답사였다. 논문 「선춘현과 공험진」에서 필자는 선춘령(선춘현)의 위치를 왕청현 부흥진과 나자구진의 향진계 고개로 비정하였으나, 2008년 12월 (사)한국미래문제연구원 주관하에 실시한 '공험진과 선춘령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윤일영은 왕청현 춘양진의 노송령을, 이상태는 연변 일대로 선춘령의 위치를 비정하기도 하였다.

43) 김구진, 「윤관 9성의 범위와 조선 6진의 개척, 여진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 제 101호, 3·1절 기념특집호(자유사, 1981), p. 144.

44)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 임오조.

45) 김구진·이현숙, 앞의 논문, pp. 65-66.

4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3월.

47) 위의 책, 예종 4년 7월.

관이 한반도 고정적이 아닌 대륙 지향적이었음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이제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군사서적인 『제승방략』과 『국역 제승방략』은 조선 세종 때 두만강 일대에서 재정비되어 운영한 ‘제승방략’이라는 군사체제에 대해 전쟁수행의 재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선의 군대가 상당히 체계적이며 전투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전방 6진 중 두만강변의 5진에서 운용한 추격처와 요격처로 이는 북간도 일대까지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던 당시 조선의 적극적인 영토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승방략’ 상의 추격처와 요격처가 갖는 강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같음할 수 있겠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추격처와 요격처는 조선과 중국(당시 명나라)의 국경문제와 한민족의 강역사(疆域史)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6진 개척에 있어 세종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려시대의 동북 9성 강역이었던 공험진과 선춘령비 위치까지였다는 것을 조선의 국경지역 군사작전 영역인 추격처와 요격처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대륙 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이었던 조선 영토관의 투영임과 동시에 실제 고려시대 동북 9성의 영역과 조선시대의 관념적 영토가 두만강 이북의 북간도 지역까지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비록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지만, 향후 통일 한국을 전제할 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강역사는 미래 통일 한국의 무한한 발전을 견인하는 훌륭한 청사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원고투고일 : 2009. 9. 4, 심사수정일 : 2009. 10. 6, 게재확정일 : 2009. 11. 17)

주제어 : 북방 제승방략, 추격처, 요격처, 공험진, 선춘령, 6진, 열진방어, 북간도, 연변, 국토정토록

<ABSTRACT>

The Territorial Meaning of *Chugyeokcheo* and *Yogyekcheo*
 - Focused on the “North *Jeseunbangryak*” as a Military System
 at *Hamgil (Hamgyeong)* Province in the 15~16th Centuries -

Choi, Chang-kuk

The positions of *Chugyeokcheo* (a place which the *Joseon Forces* pursued enemies, Nüzhen) and *Yogyekcheo* (a place which the *Joseon Forces* ambushed and defeated enemies), which were operated under the *JeSeun-BangRyak*, were in the North *Gando* Area, north of the *Tumen* River (*Jeseunbangryak* was a military system at the Tumen, *Hamgil (Hamgyeong)* Province in *Joseon* Dynasty). It means that *Joseon's* view of territory was continent-oriented and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esides, it was related to the Northeast Nine Castles which were constructed by general *Yoon Guan* in *Goryeo* Dynasty(1107~1108).

After General *Yoon* defeated Nüzhen who resided in the Tumen and North *Gando*, at that time he constructed the Nine Castles there. There have been various opinions about the area of Nine Castles. Under the colony-centered historical view, many experts have said that those castles were around the *Hamheung* plain. Recently, however, the theories which are explaining that the locations of Castles were around North *Gando* including *Jilin-sheng wangqingxian* in China.

I already have asserted that Castles of *Gongheomjin* which was located in the most northest Castle was constructed at *Chunyangzhen, Jilin-sheng wangqingxian* in China.

Much to my entertainment, the area of Nine Castles and *Chugyeokcheo* · *Yogyekcheo* were alike. This fact is saying that the territory of Korea included f North *Gando* and is not limited at the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will make clear that the position of *Chugyeokcheo* and *Yogyekcheo* was north of the Tumen, North *Gando*. From that thesis, I will examine Korea's magnificent view of territory and present the blueprint for Korea from the point of domain history.

Key Words : North *Jeseunbangryak*, *Chugyeokcheo*, *Yogyekcheo*, *Gongheomjin*,
 Ridge *Seonchun*, Six Military Camps, Defending On Spreaded
 Military Camp, North *Gando*, *Yanbian*, *GuktoJongyorok*